



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?

손경국

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사무관
kyungkuk@korea.kr

이봉희

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
bong2@korea.kr

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. 사회적 거리두기,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다.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고,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었으며, 재택근무가 늘어났다.

국민의 소비를 다루는 여러 통계 중에서 일상생활과 가까운 가구 소비의 모습을 가장 빠르고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다.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구에서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가구의 소득·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, 조사 결과가 분기별로 공표되므로 가장 신속하게 제공되는 통계 중 하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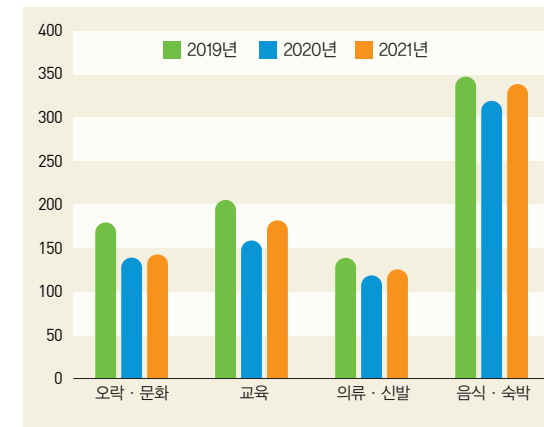
아래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본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.

I. 개요 : 2019~2021년 가구 소비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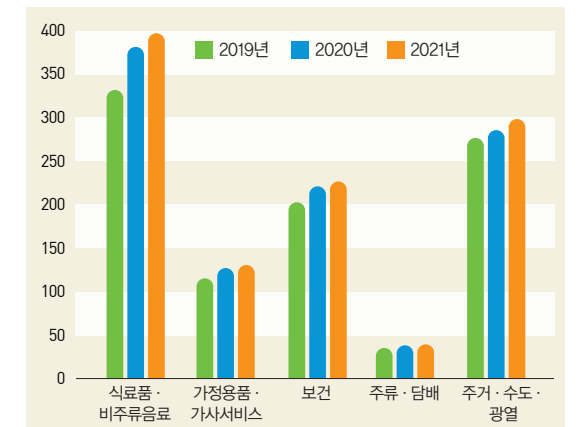
“대면 소비는 대체로 감소하고 비대면 소비는 일부 증가”

-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 2020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.3% 감소하였다.¹⁾
 - － 크게 12대 비목별로 보면, 우선 의류·신발, 오락·문화, 교육, 음식·숙박 등 대면 소비 비목에서 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.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, 집합금지 등 방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외식, 숙박, 여행, 학원교육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.
 - － 반면 식료품·비주류음료, 주류·담배, 주거·수도·광열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보건 등의 비목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 대부분 ‘집’과 관련된 비목이었으며, 건강과 관련된 품목의 지출도 증가하였다.

[그림 1] 2019~2021년 소비지출 주요 감소 비목
(단위: 천 원)



[그림 2] 2019~2021년 소비지출 주요 증가 비목
(단위: 천 원)



주 : 2019년 대비 2020년 지출액의 감소율(증가율)이 큰 순서임.
자료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.

1) 분기별로 보면 2020년 1분기·3분기·4분기 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했으나, 2분기에는 유일하게 증가하였다.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부터 지급되었고, 자동차 개별소비세 70% 감면 정책이 2020년 3~6월 동안 시행되면서 소비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.

-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된 2021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5,000원으로 2020년 대비 3.9% 증가하였다.
- 2020년에 위축되었던 의류·신발, 오락·문화, 교육, 음식·숙박 등의 비목에서 소비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. 그러나 2019년 소비지출 수준을 밀도는 데 그쳤다.
- 식료품·비주류음료, 주류·담배, 주거·수도·광열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보건 지출은 2년 연속으로 증가하였고, 반대로 교통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.

[표 1] 2019~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(단위: 천원, %)

	2019년	2020년		2021년	
	금액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소비지출	2,457	2,400	-2.3%	2,495	3.9%
식료품·비주류음료	333	381	14.6%	397	4.2%
주류·담배	36	38	4.8%	39	4.0%
의류·신발	138	118	-14.5%	126	6.5%
주거·수도·광열	277	286	3.3%	298	4.3%
가정용품·가사서비스	115	127	9.9%	130	2.6%
보건	202	221	9.0%	226	2.7%
교통	296	289	-2.4%	287	-0.7%
통신	123	120	-2.6%	124	3.4%
오락·문화	180	140	-22.6%	143	2.2%
교육	205	159	-22.3%	182	14.1%
음식·숙박	346	319	-7.7%	338	5.8%
기타상품·서비스	206	204	-1.1%	206	1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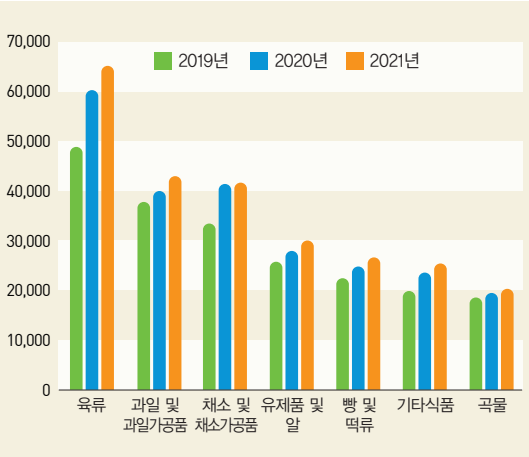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

II. ‘홈코노미’의 시대가 열린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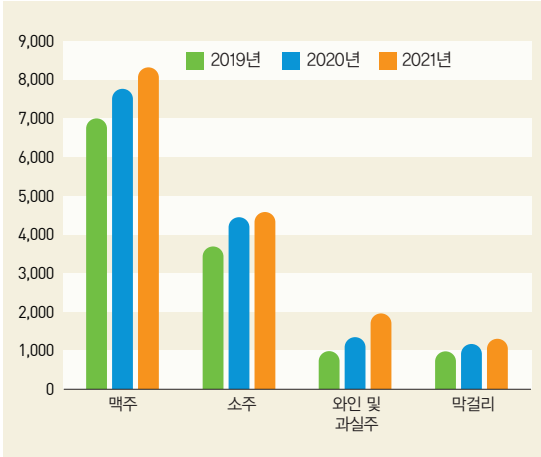
“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품목의 소비가 증가”

-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첫 번째 모습은 이른바 ‘홈코노미²⁾’라고 하는 집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.
- 가장 많이 증가한 소비 품목은 식료품과 주류이다.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4.6%,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.2% 증가하였는데, 주로 육류, 과일, 채소 등의 증가 폭이 컸다. 또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(meal kit) 등이 포함된 기타식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 한편 소주, 맥주, 와인 등의 주류도 2020년 전년 대비 13.7%, 2021년 전년 대비 11.3% 증가하였다.

[그림 3] 2019~2021년 식료품, 비(非)주류음료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



[그림 4] 2019~2021년 주류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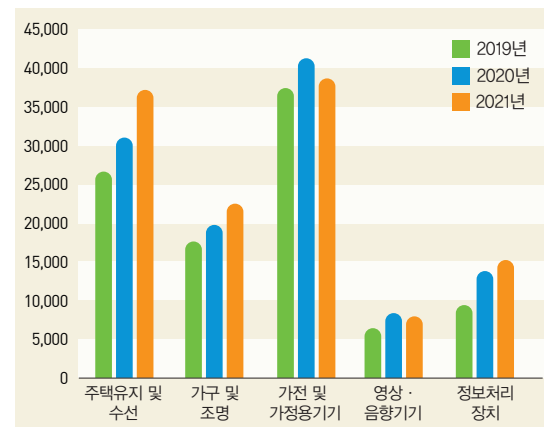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.

2) 홈코노미(homeeconomy)는 집을 뜻하는 home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합쳐진 말로,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휴식, 여가,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이르는 신조어이다(네이버 시사상식사전).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, 외국에서는 stay-at-home economy 등의 용어로도 쓰인다.

- 거주 공간을 고치고 꾸미는 데 드는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였다. 우선 주택 유지 및 수선³⁾ 지출은 2020년에 16.1%, 2021년에 19.8% 증가하였다. 또한 가구 및 조명도 2020년에 12.5%, 2021년에 13.7% 증가하였고, 가전 및 가전용품기는 2020년에 10.5% 증가하였으며, 2021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보다는 수치가 높았다. 텔레비전 등 영상음향기기와 PC,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도 2020년에 각각 32.2%, 47.4% 증가하였다.
-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극장, 각종 시설 이용 등의 문화서비스 소비가 대부분 위축되었지만, 실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. 콘텐츠 지출은 2020년에 16.3%, 2021년에 9.3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

[그림 5] 2019~2021년 홈코노미 관련 소비지출 증가 품목



주: 주택 유지 및 수선은 12대 비목 중 '주거·수도·광열', 가구및조명과 가전및가정용품기는 '가정용품·가사서비스', 영상음향기기와 정보처리장치는 '오락·문화'에 각각 속함.
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.

- 한편 외식이 제한되고 대면 소비가 어려워지는 대신 배달·택배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다. 음식 등 배달료나 온라인 쇼핑, 비대면 거래 등에 지출되는 택배료 등을 포함하는 일반화물 운송 및 보관 관련 지출이 2020년에 56.9%, 2021년에 63.6%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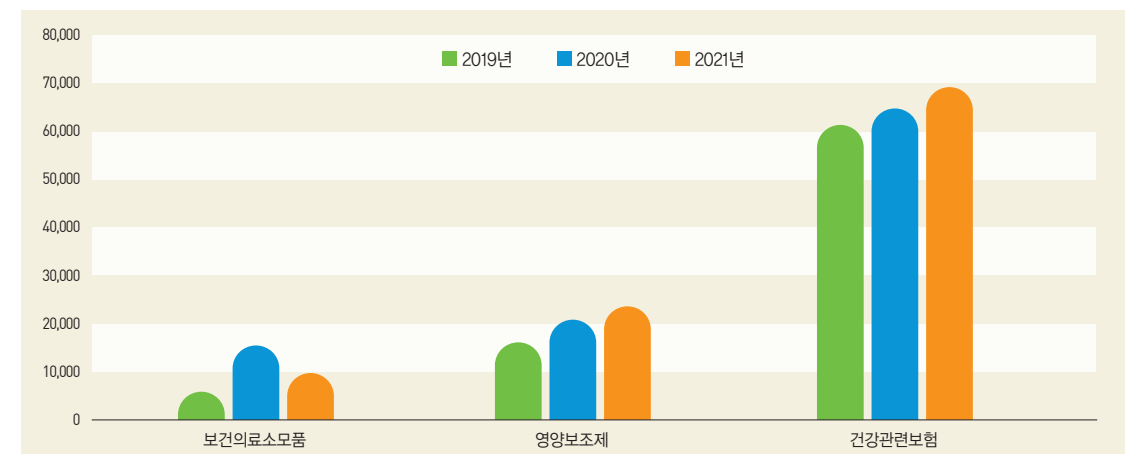
3)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선재료와 설비·수리서비스를 포함한다.

III. 건강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표출되다

“건강 관련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모습”

-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진 또 하나의 모습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늘어났다는 것이다.
 - 우선,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내·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소모품 지출이 2020년에 166.5% 증가하였다. 2021년에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2020년 대비 38.4% 감소하였으나, 2019년 지출과 비교하면 1.6배 이상 많았다.
 - 또한 개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제 등의 소비가 늘면서 의약품 지출은 2020년에 6.3%, 2021년에 6.9% 증가하였고, 의약품 중 영양보조제는 2020년에 29.8%, 2021년에 13.2% 증가하였다.
 -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마련이다. 이와 관련하여 보험 지출도 2020년에 5.4%, 2021년에 3.6% 증가하였다. 특히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관련보험 지출이 2020년에 5.7%, 2021년에 6.4% 증가하였다.

[그림 7] 2019~2021년 건강 관련 항목들의 소비지출 추이



주: 보건의료소모품과 영양보조제는 소비지출 12대 비목 중 '보건' 내에서 각각 '의료용소모품'과 '의약품'에 속하고, 건강관련보험은 '기타상품·서비스' 내에서 '보험'에 속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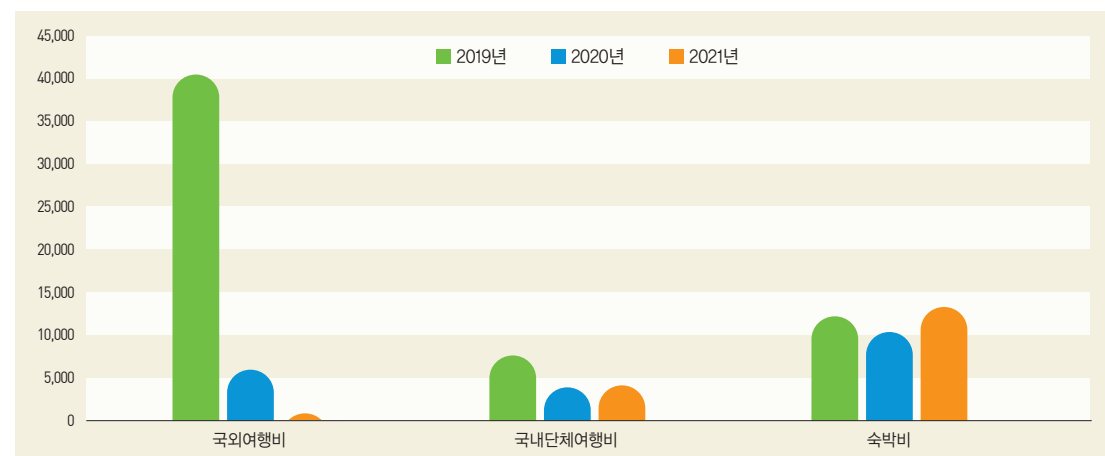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.

IV. 위축되었던 여행 소비가 국내여행으로 소폭 회복되다

“국외여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, 국내여행은 일부를 회복”

-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어들었던 소비 품목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항목은 단체 여행비 중 국외여행비였다.
 - 국외여행비는 2019년에 4만 450원이었으나, 2020년에는 5,913원, 2021년에는 621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85.4%, 89.5% 감소하였다. 2020~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항공 편이 급감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국제여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.
 -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된 초기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있어 일부 금액이 통계에 잡혔지만, 2021년에는 한 해 내내 여행이 제한되어 국외여행비가 전년보다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.
- 국내(단체)여행비도 2019년에 7,727원에서 2020년에 3,817원으로 전년 대비 50.6%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. 다만 2021년에는 4,029원으로 전년 대비 5.5% 증가하였는데, 방역수칙 아래에서도 국내여행 수요의 일부가 회복되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 8] 2019~2021년 여행 관련 항목의 소비지출 증감 추이



주: 국외여행비 국내단체여행비는 소비지출 12대 비목 중 '오락·문화' 내에서 '단체여행비', 숙박비는 '음식·숙박'에 각각 속함.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~2021년).

- 다만 국내여행의 경우 단체여행 외에 교통, 음식·숙박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기도 하는데, 기차 이용을 위한 지출은 2019년에 5,088원에서 2020년에 3,256원으로 36.0%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3,503원으로 7.6% 증가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. 숙박의 경우 2019년에 1만 2,158원에서 2020년에 1만 229원으로 15.9% 감소하였으나, 2021년에는 1만 3,202원으로 29.1% 증가하며 오히려 2019년 금액을 웃돌았다. 여행지에서 구입한 음식은 외식 등 식사비에 포함되며, 식사비는 2020년에 7.4% 감소하고 2021년에는 5.0% 증가하여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.

V. 최근 추이 :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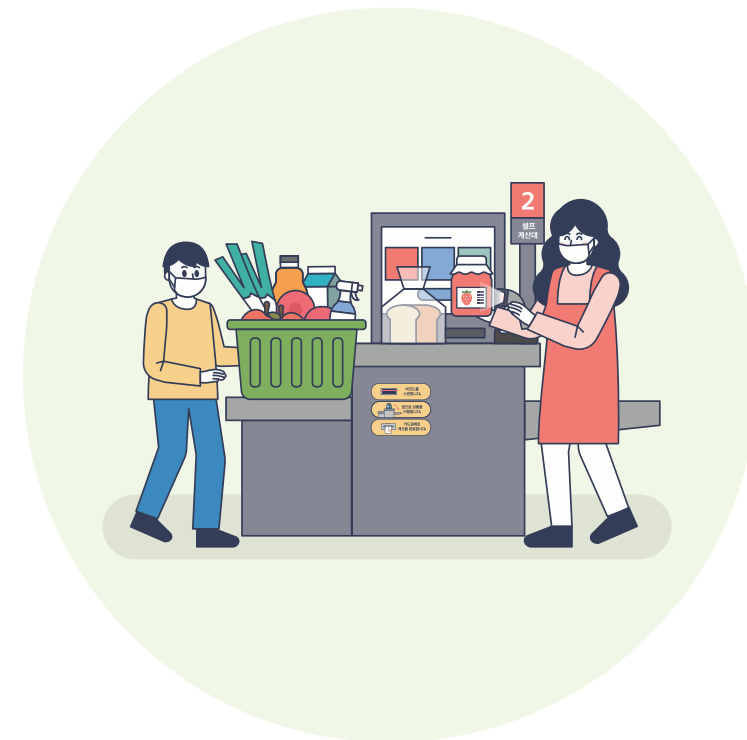
“외식, 숙박 등 대면 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지출액 증가”

- 2022년 2분기 소비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4월 18일)에 따른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.8% 증가하였다.
 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4월 18일)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, 이로 인해 외부 활동 관련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.
 - 특히 음식숙박이 17.0%, 교통이 11.8%, 오락문화가 19.8% 증가하는 등 기존에 위축되었던 대면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.
 -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거주 공간을 꾸미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가 9.4%, 주거·수도·광열이 3.3% 감소하였다.
 - 다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내 연료비, 외식, 식료품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관련 지출액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. 특히 운송기구 연료비, 식사비 각종 식료품 등은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의 증감률 차이가 컸다.



코로나19 발생 이후

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?



- 본 분석은 「가계동향조사」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.
 -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7,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가계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.
 - 분석에는 2019~2021년 연간 지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, 현재 가계동향조사 통계 작성 기준인 전국 1인 이상 전체 가구(농림어가 포함)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.
 - 가계동향조사는 개인이 아닌 가구(household)를 단위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.
 -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. 물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(2020년=100)를 이용하여 작성된 실질 금액은 국가통계포털(KOSIS)에서 확인할 수 있다.